“원칙·규정 준수…시스템 관리 힘쓰겠다”

광주매일신문 시무식·윤리강령 실천 결의

병오년 새출발…창사 35년 저력 강조
특종 발굴·아카데미 유공 등 격려도
이경수 대표이사 “활기 넘치는 조직을”

광주매일신문은 5일 오후 본사에서 이경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갖고 병오년(丙午年)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조영권 기자

광주매일신문은 5일 이경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윤리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겸한 시무식을 갖고 병오년(丙午年)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오후 2시 광주 남구 구동 광주매일신문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은 국민의례, 사시 제창, 기자 윤리강령 실천 결의, 대표이사 신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은성 편집국장의 사시 제창에 이어 기수희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매일신문지회장과 임직원들은 기자 윤리강령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부정이나 간섭,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취재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어떠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이경수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취임 5년차를 맞아 조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올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규정에 따른 ‘신상필벌’을 제도화해 잘한 일에는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관행에는 책임을 묻는 등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창사 35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의 저력과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보도된 ‘광주 소비쿠폰 주홍글씨’ 기사는 제보 없이 온전히 현장 취재로만 일궈낸 단독 보도이자 특종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취재와 제작에 수고한 기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권 아카데미의 안정적인 정착과 순항을 이끈 지역 기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대표이사는 “좋은 회사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때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손을 맞잡고 활기 넘치는 조직을 구성하자”고 당부했다.

/주성학 기자

안영근 전남대병원 교수 대한심장학회 회장 취임

안영근(사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2026년 대한심장학회 제6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5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안 신임 회장은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재시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연구·교육을 균형 있게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심장내과 전문가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과 복합 병변 치료 분야에서 다기관 임상연구를 주도하며 란셋(Lance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 심장학의 표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안 신임 회장은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수십년간 회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는 근거 기반 진료의 고도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 정밀의학,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심장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수희 기자

안영준 조선대 의대학장 ‘교육부장관상’

조선대학교는 “최근 안영준(사진) 의과대학 학장이 학사 운영 안정화와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안 학장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또 학생 중심의 학사 관리 원칙을 견지하며, 교수진과 행정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 왔다.

안영준 학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옥 기자

담양소방서 시무식…“지역 안전망 강화”

담양소방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최근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시무식에서는 ‘더 안전한 담양 만들기’를 목표로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새해를 맞아 소방공무원 모두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업무에 더욱 힘쓰고,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담양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새해 첫날 지역사회 나눔 실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를 복지관 봉사활동과 기부금 전달 등 지역사회 나눔으로 열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은 지난 2일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끝전 모으기’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복지관 이용 주민들을 위한 급식 지원과 복지사업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대삼 원장은 “시무식을 맞아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자 봉사활동과 기부를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황연호 광주교통공사 팀장 ‘전기응용기술사’ 합격

광주교통공사는 “황연호(55·사진) 산업안전보건팀 팀장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37회 전기응용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응용기술사는 전력 활용과 관련된 폭 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평가, 분석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 취득이 가능하며, 최종 합격률이 5% 내외인 전기 분야 최고의 자격시험이다.

황 팀장은 “2003년 입사 후 전기·관제·에너지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3년의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공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술사 취득으로 공사는 전기, 신호,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0명의 기술사를 보유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수희 기자

쌍교숯불갈비, 전남 사랑의열매 2천만원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최근 ㈜쌍교숯불갈비가 이웃사랑성금 2천만원을 기부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나눔명문기업’ 전남 15호로 가입한 김창회 쌍교숯불갈비 대표는 현금은 물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등 현물 기부를 통해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또 김 대표와 배우자인 송선희씨는 모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개인 차원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창회 쌍교숯불갈비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동신대 창업동아리 ‘EMPT’, 무릎받침대 특허 등록

동신대 응급구조학과와 물리치료학과 연합 창업동아리 EMPT가 개발한 심폐소생술용 무릎받침대가 특허를 받아 화제다.

5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특허 물품은 ‘심폐소생술용 무릎받침대’(특허출원번호 제10-2024-0172796호)로, 심폐소생술(CPR) 시행 과정에서 시술자의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흉부 압박을 돕는 보조기구다.

내부에 충전된 에어를 통해 시술자의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 구조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시술자의 상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준다.

특히 내부가 진공된 구조여서 사용 시 에어를 인입해 완충 효과를 제공하고 미사용 시에는 에어를 토출한 뒤 접어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돼 휴대성과 취급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선옥 기자

동강대 전수진 학생 ‘광주 AI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동강대학교는 “최근 ‘2025 광주 ON-AIR AI 콘텐츠 공모전’에서 미디어콘텐츠과 전수진 학생이 ‘양동시장, 아이도 반하다’ 작품으로 장려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수진 학생은 ‘생성형 AI’ 기반 제작 기법을 적극 활용해 호평 받았다. 이는 동강대 RISE 사업단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 지원 결과물로 의미가 있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AI 기반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과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생들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이끌고 있다.

문유심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는 “학생들이 기획·촬영·편집 등 영상제작 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창작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자원 기반의 로컬 브랜딩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AI 기반 미디어 창작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조혁환 신임 광주 북부소방서장, 전통시장 안전 점검

광주 북부소방서는 5일 “올해 첫날 취임한 조혁환 제22대 서장이 취임식 대신 말바우시장을 찾아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서장은 이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기 비치 상태와 통로 확보 여부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살폈다.

또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 사항도 확인했다.

장흥 출신인 조 서장은 1994년 소방에 임용돼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과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과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조혁환 서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곳”이라며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인사

전남도의회 ◇3급 승진 ▲총무담당관 장정희

◇4급 승진 ▲특별수석전문위원 최은주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조신석

◇4급 전보 ▲의사담당관 진종석 ▲정책담당관 박영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총무담당관실(장기교육)

부음

▲이호남씨 별세, 박경한씨 배우자상, 박균섭·균철·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모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모상=발인 6일(화) 오전 9시 광주 빛장례식장 특2호실(062-452-4000).

▲정혜순씨 별세, 김수광씨 부인상, 김태혁(광주시청)·태완(동탄통증의학과)씨 모친상=발인 6일(화) 금호장례식장 301호(062-227-4000).